



[뉴스] 중금리 대출 때문에 인터넷은행 역대급 실적에도 한숨 02



Economy

코스피	2968.80 (0.00)	코스닥	1009.07 (0.00)
금리 (미국 3년)	1.968 (+0.055)	환율 (원/달러)	1179.60 (-1.20) (12일)

# 배추 주산지도 못 피한 '무름병' 속타는 農心, 김장철 금추 비상

## Q 르포 | 해남군 배추 수확현장 가보니

이상고온·가을장마 등에 전국 배추밭 무름병 확산 3대 주산지 해남도 발생

지난 12일,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송호리 배추밭은 수확을 앞둔 싱그러움 초록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멀리 보이는 남해로부터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데 곳곳에 버티고 선 배추가 아름다운 정원처럼 보였다. 인부들이 신나는 노래를 틀어놓고 배추를 부지런히 수확하는 모습에서는 활기가 느껴졌다.

그러나 김필곤 부광농산유통 대표이사는 지금 속이 타 들어가고 있다. 그는 한 구역의 배추를 가리켰다. 속이 누렇게 녹아 썩은 배추무름병(연부병)에 걸린 배추가 어림잡작으로 80%는

돼보이는 밭이었다. 한 쪽은 누렇게 속이 녹았는데 다른 쪽은 보기만 해도 건강함이 느껴져 이질적이었다.

"9월 초부터 기온이 갑자기 상승해서 배추들이 병원균에 이길 힘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또 비가 많이 오니까 아예 이렇게 된 거지요. 배추무름병이 이래요. 저쪽 밭과 이쪽 밭은 갈숨이나 비닐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쪽은 싹 죽었지만 저쪽은 산 거예요."

배추가 '금(金)추'가 됐다. 평년 기준 10kg당 평균 7187원이던 배추가 12일 기준 13560원에 거래되고 있다. 1년 전 같은 기간에 6608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비싸졌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나마 작황이 괜찮다는 전라남도 목포시 해남 배추밭을 직접 찾아갔다.



김필곤 부광농산유통 대표이사가 배추무름병에 걸린 배추가 가득한 밭에서였다. /김서현 기자

배추는 해남과 함께 강원 춘천, 충북 청주·괴산 등이 3대 주산지로 꼽힌다. 충청·강원 중부지방의 작황은 처참한 상황이다. 육묘장에서 배추를 가져와 심어 한창 키우던 9월 평년 수준을 웃도는 이상 고온이 이어졌고 거기에 더해 '가을장마'라 부를 정도로 비가 잦아들면서 배추무름병이 돌아 밭을 초토화했다. 해남도 주산지 중 가장 상



2022 수능 D-3 2022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4일 앞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국화꽃 공양기도를 위한 소원지에 수능 고득점 및 합격률 기원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뉴스시

태가 나은 곳이지만 이곳도 배추무름병을 완전히 피하진 못했다. 배추무름병은 배추에서 가장 피해가 큰 병해다. 가장 안쪽 하위엽에서 발병해 바깥쪽 잎으로 차례로 번지며 안쪽이 썩게 만든다.

김 대표이사의 밭도 전체의 10% 미만은 피해를 입었다. 다

행히도 피해를 입지 않은 배추들은 통이 크고 잎이 뽀뽀하면서 아삭해, 보기만 해도 건강함이 느껴질 정도였다. 그의 밭이 피해가 덜한 것은 밭이 자리한 해남군 황산면의 위치와 40년에 이르는 농사 경력 덕분이다.

(2면에 계속)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 社告

### 메트로경제 '제6회 뉴테크놀로지포럼' 메타버스·AI 경계를 넘다

메타버스는 글로벌 공룡 기업 뿐만 아니라 게임,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IT, 경제, 문화, 정치 등으로 확대되는 등 우리 생활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합니다.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제트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는 앱을 설치하고 자신만의 아바타를 만들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페토월드'에 입장하면 공항, 교실, 파티 룸 등 '맵'을 통해 다양한 세상과 만날 수 있고, 가상의 한강공원에서 친구들과 대화도 나누고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인공지능(AI) 기술로 버추얼 휴먼을 만들어 가상공간에서 활동하게 하는 AI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AI로 가상인간을 만들어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거나 AI 모델, AI 유투버, 심지어는 AI 아이들로 데뷔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AI 가상인간인 이마는 지난해 8월 이케아가 도쿄에 새롭게 매장을 내자, 3일간 이케아 가상공간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일상의 모습을 유튜브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메타버스와 AI는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메트로경제는 '제6회 뉴테크놀로지포럼'에서 메타버스와 AI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 주 제 : 메타버스·AI 경계를 넘다
  - 일 시 : 2021년 11월 24일(수) 오후 2시~5시
  - 장 소 : 서울 중구 을지로5길 페럼타워 3층 페럼홀 (온·오프라인 병행)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후 원 :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 기초강연 (14:20~15:00) : 현대원 서강대 메타버스전문대학원 원장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 방향>
  - 강 연 (15:00~17:00) : 박상용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 교수 <코로나시대의 비대면과 메타버스> 박외진 아크릴 대표 <AI, 헬스케어 넘어 웰케어 시대를 열다> 이정수 플라토 대표 <메타버스와 언어인공지능> 이승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팀장 <메타버스 비전즈>
  - 사전등록 :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 온라인 접속 : 이메일 등록하면 신청자에게 해당 이메일로 접속 URL 공지
  - 문 의 : 제6회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 \*상기 일정 및 후원, 강연 등의 내용은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기업대출이 상호금융 비주담대 증가액의 87%를 차지했으며 기업대출의 부동산관련업종 비중은 지난 3월 말 53.2%로 절반을 넘었다. 기업 비주담대의 연체율은 올 상반기 기준 2.4%로 집계보다 높고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면에 계속) /권소안 기자 think@

# 非주담대 증가세... 상호금융 부실 뇌관 부상

올 비주담대 상반기만 278조 지난해 말 대비 21조 넘어서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비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여전하다. 매년 규모가 불어나는 상호금융권 비주담대는 주담대에 비해 질적 구조 개선이 미흡해 부실화할 경우 단위조합에 미칠 여파가 크다는 지적이다.

14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 잔액은 총 278조원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잔액이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상태다. 2016년 173조6000억원이었던 상호금융 비주담대 규모는 2019년 226조8000억원으로 증가, 지난해 257조5000억원까지 늘면서 상호금융권 전체 대출 총액의 64%를 차지했다.

◆상호금융 비주담대 급증

올 상반기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 총액 중 토지담보대출 잔액은 131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16조8000억원) 대비 12.5% 늘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농협상호금융의 비주담대 규모가 206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협(52조9000억원) ▲수협(14조4000억원) ▲산림(4조4000억원)조합이 뒤를 이었다.

토지·상가·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하는 비주택담보 대출은

은행, 보험사 등 타 업권에 비해 유독 상호금융권에서 취급 비중이 높다. 지역 기반으로 운영되는 특성에 따라 담보중심 대출 취급 관행이 더해진 결과다.

문제는 비주담대의 질적 구조다. 국내 상호금융 비주담대는 부동산 개발·임대 관련 투자 수요가 늘면서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관련 업종은 경기애 민감한 특성 탓에 상환 리스크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 뉴스터뷰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청와대, '한중일 정상회의 보류' 보도에 '결정된 바 없다' ▲ 윤석열, 선대위 주도권 싸움... 이준석·김종인과 대립 /사진 뉴스시

▲ 최종건 외교차관, 한미일 협의차 미국행... 대중전략 논의 주목 ▲ '유엔사 해체' 또 들고나온 北... 종전 선언·전략권 겨냥하는듯



▲ 이준석, '20대 소득세 비과세' 이재명에 '아무 공약 대잔치' /사진 뉴스시 ▲ 일본에만 대사관 뒀던 카메룬, 한국에도 대사관 개설